

김준의 갯살이



돌담의 가치

초등학교 때였다. 눈두렁 발두렁을 지나 집에 들어선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마당에 내 동생이쳐진 지붕을 덮고 있던 이엉들이었다. 지붕 위에 올라앉은 먼지원의 손에는 쇠스랑이 들려 있었다. 논에서 소식을 듣고 골 달음에 달려온 아버지는 체념한 듯 마루 끝에 앉았고, 어머니는 먼지원을 향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며 원망을 했다.

슬금슬금 내려온 그들은 뒷집으로 올라갔다. 그 집도 사정은 우리와 같았다. 뜰겨버린 이엉 대신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지붕을 덮고 있었던 것은 비닐이었다. 그것은 비가 들지 않도록 한 임시방편이었다. 그때는 벽돌을 쌓아 시멘트를 바르고,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꾼 집이 그렇게 부러웠다. 게다가 흙마당을 시멘트로 바른 집은 나의 로망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새마을사업이었다.

지난 주말에 완도에 있는 작은 섬 소모도를 다녀왔다. 첫배를 타고 청산도로 건너가 그곳에서 완도로 오는 섬사랑호를 탔다. 모도를 지나 40여 분 만에 소모도에 도착했다. 같이 내리는 사람도 없었다. 나 혼자였다. 선창 뒤 숲 사이로 붉은 색, 파란 색 지붕이 동화 속 세상처럼 보였다. 언덕에 올라서 마을을 본 순간 탄성이 절로 났다. 내 눈을 사로잡은 건 돌담이었다. 내가 본

섬마을 중 으뜸이었다. 돌담은 그 옛날 가난의 상징이었다.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농어촌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직선으로 뚫렸다. 차곡차곡 모양새에 맞춰 쌓은 돌담은 반듯한 블록으로 바뀌었다. 섬마을 돌담은 이때도 고집스럽게 자리를 지켰다. 특히 작은 섬은 더욱 그랬다.

섬 살림도 빠듯했지만 나라살림도 곤궁해 작은 섬마을까지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해 줄 여력이 없었다. 고속도로반과 육지에 있는 큰 마을에 먼저 투자를 했다 보니, 섬마을에까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얼마나 다행인가. 벽돌담은 세월이 흐르면서 추해졌지만 돌담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차곡차곡 삶의 흔적들을 쌓아갔다. 시멘트 담은 쓰레기로 변해갔다. 하지만 돌담은 보물이 되었다. 소모도의 돌담이 그랬다. 게다가 송아, 담쟁이, 마삭줄 등 넝쿨이 담을 감싸고 있었다.

20여 집이 사는 작은 섬마을을 돌아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 돌담이 좋아서나 바뀌를 들었다. 그리고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말을 걸어오는 동백꽃에 눈을 맞추었다.

십삼여 년 공직생활을 하다 백발이 되어 고향에 돌아와 다시 보니 이제야 돌담이 아

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노인의 말이 그대로 가슴에 박혔다. 그 옛날 노인에게도 돌담은 가난과 고통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다. 돌담의 가치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사람이 떠난 빈집을 지키고 있는 돌담을 통째로 걷어갔다든 이야기도 들린다.

돌담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연륜이 쌓였다는 거다. 세월의 흔적을 훈장처럼 달고 있는 돌담이 마치 삶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말이다. 몇 년 전에는 어느 섬마을 돌담이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다.

섬살이를 위해서 돌은 꼭 필요한 존재다. 청산도에서는 비탈진 곳을 개간하여 돌을 쌓고 갈아 '구들장논'을 만들었다. 제주에서는 돌로 울레를 만들고, 말과 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발담도 쌓았다. 죽은 자를 위해 '산담'을 쌓고 산자를 위해 바다에 '원담'을 쌓아 멀치를 잡았다.

청산도의 구들장논은 우리나라 국가농업유산 1호로, 제주도 돌담밭은 2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전통농업과 농지이용 방식, 문화, 경관, 생물이 풍부한 지역을 선정해 미래세

대에게 계승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섬살이에서 돌은 모양과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물으로 물질을 하러 간 잡녀들은 돈을 벌면 꼭 돌학과 다듬이돌을 사서 섬으로 돌아왔다. 집 주인이 떠난 마당 한 귀퉁이에 덩그러니 놓인 돌학이 그것이다.

돌담이 아름다운 집을 기웃거리다 팔순을 앞둔 노부부를 만났다. 마당에 들어서니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기쁨이 배달되지 않는다며 딸감용 나무를 썰고 계셨다. 나무도 썰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다. 속떡도 구워 먹고, 점심을 해결했다. 이런 인연으로 배가 올 때까지 햇볕이 좋은 마당에 앉아 음독도 듣고 책도 읽는 호사를 누렸다. 돌담이 아름다운 섬 집을 보면 그 앞에 오래도록 발걸음이 머문다.

얼마나 다행인가. 새마을사업이 비껴간 섬마을 돌담이. 몇 년 전부터 아내에게 섬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버릇도 늘었다. 섬마을 돌담을 보고 온 날이더 더 절실해진다.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아내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동조한 것은 아니다. 아직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벌써 돌담에 둘러싸인 아담한 집에 머무르는 꿈을 꾸다.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社說

학원비 불법 인상에도 손놓은 시교육청

새학기 들어 학원비와 보습교육비, 교재비 등이 큰 폭으로 올라 서민들의 가계를 옥죄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사립은 더욱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줄어든 데 반해 경제 여건이 극히 열악한 광주는 오히려 4년 연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4.9%)·인천(-5.1%)·경기(-7.4%) 등지의 사교육비가 줄어든 반면, 광주(6.9%)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광주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20만9000원에서 2012년 23만1000원으로 4년 사이에 2만2000원이나 상승했다.

여기에 지난해 광주지역의 학원·보습교육 물가는 8.3% 치솟아 대구(9.5%)·경북(8.4%)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고등학생 학원비는 무려 10.7%나 폭등해 전국 평균(8.1%)을 크게 웃돌았다. 사교육비의 현저한 증가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한 학원 및 고액 과외의 성행 등이 주요 요인이다. 일례로 광주시교육청이 사교육을 줄이고자 일선 학교에 개설한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지난 2010년 60.3%에서 2011년 56.1%, 지난해에는 56.5%에 그쳤다. 허술한 사교육 대처가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학원에 내몬 것이다.

일부 학원들의 학원비 기습인상에 대한 교육청의 단속 또한 극히 미흡적이다. 읍몰이 학원들의 고습비 불법 인상과 관련해 적발한 건수는 한 건도 없다고 한다.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 바 없다. 게다가 시교육청이 폐문 학교 평준화정책도 사교육을 부추켜온 게 사실이다.

광주교육청은 무엇보다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과후 학교 등 공교육 내실화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불법으로 고습비를 인상한 학원과 과외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완도 어촌 ‘벌금 폭탄’ 현실 외면한 처사다

완도의 작은 어촌마을이 굴 껍질 처리 문제로 수천만 원의 ‘벌금 폭탄’에 맞을 처지에 놓여 있다. 바닷가 굴 껍질 투기는 그동안 이 마을뿐 아니라 대다수의 어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에도 해경이 불법투기로 적발한 때문이다.

완도군에 따르면 고급면 화성리 주민 16명은 지난 5일 김중식 군수와의 간담회에서 “수십년째 생계 수단으로 굴 양식을 해온 60~80대 노인들이 굴 껍질 때문에 5000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게 됐다”며 대책을 호소했다고 한다. 완도해경이 굴 껍질은 관련법상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공장으로 보내 처리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이를 위반했다고 적발해 검찰에 넘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이들 16명에게 30만~500만 원씩 모두 4950만 원의 벌금을 법원에 청구했다. 생계형 굴 양식 주민들인지라 벌금이 확정되면 ‘한 해 소득을 초과한’ 액수를 내야 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마을의 벌금 폭탄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굴 껍질 처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대안 없이 단속에만 열을 올린 결과라는데 문제가 있다. 가난한 시골 노인들이 굴 껍질 분쇄기를 갖추거나 자비로 처리공장에 보내기도 쉽지 않고, 공장도 없는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얘기가.

어촌지역 굴 양식 어민 대부분이 굴 패개를 버리고 있는데도 민원을 명분 삼아 화성리에만 벌의 잣대를 들이댄 데 대해 주민들이 법안을 토로하는 이유다. 지난해 패각 투기와 관련해 해경이 단속한 곳은 화성리가 유일하다. 주민들은 오는 20일 광주지법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시골 어촌마을 현실과 맞지 않은 법 집행인 점을 감안해 우선 어민들에 대한 선처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오염방지 차원의 패각 처리 문제는 전 어촌에 해당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삼국유사의 중요성을 압시다



도 권 백양사 포교국장

리 역사의 근본을 알 수 있는 중요사료 등이 실려있어 중국 역사와 어께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게 해 준다.

일연 스님이 생존해있던 13세기는 몽고의 침입을 받아 전 국토가 폐쇄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민족역사와 문화의 자부심이 무너져 갈 때였다.

한민족이 가진 역사와 문화인식은 그 민족의 자부심 자체일 것이다. 그러면 문화는 무엇인가? 사전적 해석으로는 영어 ‘Culture’가 ‘문화’로 번역되었고, 이는 라틴어의 ‘경작하다’라는 말에서 유래 되었다.

문화란 인간이 가진 지적능력을 발휘하여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일구어내는 동작들이 모여 일정한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가 굳어져 유형, 무형의 산물을 전수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미각을 자극하는 맛있는 요리법을 개발해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문화요, 우리나라의 고건축이 갖는 미려함과 기능성, 보색대비를 통해 본 단청의 화려함, 동시에 전각을 보호해 주는 방충기능도 문화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필자는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 주지를 맡은 덕분에 한 4년을 삼국유사에 빠져 살았다. 삼국유사 속에는 우리네 전통과 문화와 의식이 오투이 살아있고, 옛 어른들의 생각과 생활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다.

삼국유사 144편의 이야기 중 약 80%는 불교에 관한 이야기다. 약 1700년 전 고등 종교로서 불교가 이 땅에 유입되었다. 불교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지도층의 적극적인 포용정책으로, 때론 이차돈의 순교와 같은 격렬한 저항을 거치며 민중 속에 널리 퍼졌다.

지금 한국인의 심정 깊숙한 곳에 자리매김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를 거치면

서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네 문화유전자에 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 권장도서 목록에는 꼭 ‘삼국유사’가 들어 있었는데 한문을 직역한 책 내용이 다소 고루하고 따분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008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 ‘장 마리 글레지오’가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은 ‘삼국유사’라 했다. 외국인도 재미있어한 삼국유사가 왜 우리에게 따분한 책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삼국유사’ 행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지 못한 까닭 때문일 것이다.

삼국유사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연극과 뮤지컬 등 공연예술의 한 장르로 개척해 나간다면 학문적 연구성과와 더불어 대중예술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고

도시민과 농업인 상생, ‘힐링팜’에 답 있다



박 태 식 광주농협본부장

힐링이 신드롬 열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프고 피곤하다는 방증이다. 물질만능주의 시대, 과도한 경쟁속에 내몰리면서 힐링 트렌드는 우리 경제의 성장 단계에서 어쩌면 당연한 현실일지 모른다.

이러한 고민선상에서 농업의 치료효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은 그 기반 자체가 힐링이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맑은 공기와 수려한 자연환경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으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 토양 유실방지, 홍수방지 등의 국토보전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생물들에게 소중한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같이 농업 생산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것들을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 즉 공익적 가치라고 한다.

선진국이 전체 경제 및 인구 구성면에서 미미한 비중의 농업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농업이 인간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농업활동은 심리적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높다. 미국의 대기환경 전문가인 울버튼(B.C. Wolverton) 박사는 사람이 식물 근처에 있거나 식물을 돌보면 편안함을 느낀다고 발표하였다. 실제 도시민들은 피곤한 사회생활 속에서도 텃밭을 가꾸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농업경영도 생산자인 농업인이 소비자인 도시민을 상대로 힐링농업을 경영할 수 있고 소비자가 생산자를 찾아가 힐링농업을 체험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농업 광주지역 정부가 고안한 힐링팜(healing Farm) 사업이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힐링팜은 기존의 패착한 농촌환경과 함께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웰빙을 토대로 삶에 지치고 힘든 마음과 육체적 고통을 치유하자는 운동이다. 힐링팜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그 첫번째 시도는 체험형 계약재배 농장 운영이다. 토지를 분양받은 도시민이 계절

별 농사체험을 하고 농업인은 농작물을 관리하여 수확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배송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주말농장이다.

기존의 주말농장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도시민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

힐링팜의 또 다른 사업은 향토·발효 음식 마을 육성이다. 가족단위 지역 계절 향토음식을 맛보고 구입하는 맛 기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향토·발효음식 마을 체험방문을 통한 우리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우수한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도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가족건강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이 사업이 정착된다면 도시민들은 손수 텃밭을 가꾸지 않더라도 농촌을 답사하며 산지에서 믿음직한 편장, 고추장 등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테이크아웃 할 수 있을 것이다. 힐링팜이 농가에는 활력을 불어 넣고 지친 도시민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체험하는 도약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無 等 鼓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감퇴에 좌절감을 느끼지만 망각이 축복일 때도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터넷연구소의 빅토어 마이어 선베르거 교수는 ‘잊혀질 권리’라는 저서에서 인간은 망각을 통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인간의 뇌 구조는 망각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반면 기억은 예외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과 전 지구적 네트워크 때문에 이 균형이 역전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입력된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과거의 기억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은 뇌속에 저장된 기억들 중에서 남길 것과 지울 것을 결정해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자연계에서도 망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 속담에 ‘가를 다람쥐처럼 욕심 우리 속담에 ‘가를 다람쥐처럼 욕심을 낸다’라는 말이 있다. 다람쥐가 가을에 먹을 것을 사방에 묻어놓고 막상 겨울이 되면 어디에 묻었는지를 몰라 찾아먹지 못한다는 데서 유래된 속담으로,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망각의 역할



다람쥐에게 걸린 데 맞은 도토리들이 새봄이 되면서 싹을 틔워 숲을 이룬다는 것이다.

다람쥐는 자신이 먹을 것을 위해 도토리를 땅에 묻지만 자발적으로 열매를 퍼뜨리지 못하는 참나무 입장에서선 역설적이게도 씨앗을 퍼뜨려 숲을 무성하게 만든다.

바야흐로 봄이 왔다. 여기저기서 새싹들이 움트고 있다. 땅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을 보면서 다람쥐의 역할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는 일은 없을까 꿈에 꾸기도 한다. 사투고 잊어버렸던 복권이 당첨되는 일 같은 것 말이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유가족 상처 주지 않도록 장례식장 운영했으면

옛날이야 사람이 죽으면 가정에서 장을 치렀지만 지금은 누구나 장례식장을 이용한다. 당연히 상을 당한 사람 쪽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고인이 작고하신 병원의 장례식장 혹은 일반 전문 장례식장에 모시고 문상객을 받아서 보통 3일 장을 치른다.

예를 들어 특실 기준으로 약간 고급 장례식장의 경우 하루 임대료만 300만원 정도가 된다. 3일장 기준으로 하면 9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물론 장례식장마다 크기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어쩌거나 하루에 300만원이 기본이고, 어떤 데는 400만원이 넘는 곳까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냐. 친척 어른신을 모시는 과정에서 알아낸 사실인데 관의 경우 통관 할 조각만 300만원, 안동포 270만원 이런 식이었다. 삼나무관은 27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걸 미리 외부에서 싸게 준비할 수도 있지만 장례식장에서는 그런 손님은 받지를 않는다. 특히 요즘은 보혈처럼 상호회에 가입해 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상호회에서 관이나 수의 같은걸 미리 저렴한 걸로 준비해 상을 당했을 경우 즉시 제공해주기까지 한다.

이미 상호회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돈을 지다 지급했는데 장례식장에서 자기네 물건을 쓰지 않는다면 고인을 모실 방도가 없기에 유가족들은 생돈을 날리는 수밖에 없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또한 후손들은 그 고인을 영면의 길로 안내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를 이용해 무조건적으로 최고급이나 읍선으로 박아서 사용토록 강요하는 것은 망자 앞에서 할 것이 못된다. 장례식장의 건전하고 양심적인 운영을 기대한다. ▲이승열·목포시 옥암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케팅국 2200-6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